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듬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07. 13	07. 20	07. 27
대 표 기 도	이윤선 성도	장래황 형제	정환영 형제
성 경 봉 독	이윤선 성도	장래황 형제	정환영 형제

교회소식

1.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2025년 하반기에도 주님의 기름 부어주심이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4. 한국 방문 및 출장 - 김문희 성도 가정, 류현석 형제(4일) 김새연 자매(6일)
5. 나눔의 시간 - 친교실에서 모입니다.

교우동정

생일	조영재 형제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주일학교	
감사헌금	
합계 (Euro)	
온라인헌금(6월)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롬12:15)”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HanMin Gemeinde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홈페이지 :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425장	다같이
기 도 Gebet	-----	이상호 목사
성경봉독 Predigttext	단 1 : 8 - 17(구p1231) (Daniel 1:8-17)	윤미경 자매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이상호 목사
설교 Predigt	관계회복(VII) - 갈등 중재	이상호 목사
성찬식 Abendmahl	보혈을 지나, 막14:22~26	담임목사
*파송찬양 Abschlusslied	나의 영원하신 기업(1,3절)	다같이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침은 성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성김이들과 입시와 취직 준비생들을 위하여
2.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
3. 황희순 집사님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4. 백승민 자매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도록
5.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6. 김선택, 장보경(형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변치 않는 믿음

올림픽에 출전한 육상경기 선수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매일같이 고통스러운 훈련을 하지만 그 고통을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입니까?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약속되어 있지 않은 불확실한 꿈, 메달을 딸지 못 딸지 모르는 불확실한 꿈을 가지고도 고통을 잘 견딥니다. 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확실한 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약속된 부활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끔 원망합니다. 왜 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히3:14)”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영원한 생명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문제가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오늘 내가 눈물을 쏟은들 어떨습니까? 병들어 아프면 어떨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짧은 인생을 몇 년 혹은 몇 십 년 더 연장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까지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수 없는 일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그러면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꿈을 버려라 / 정홍준 목사

소모임을 위한 질문

1. 우리가 직면하는 유혹에서 어떻게 순결과 거룩을 지킬 수 있을까요?
2. 하나님의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